



# 체리셰프 2경기 연속골 호날두와 득점왕 경쟁

## 2018 러시아 월드컵

사우디아라비아와 개막전 두 골에 이어  
이집트와의 2차전서 한 골 추가

러시아 공격수 데니스 체리셰프(27·비아레알)가 국제축구연맹(FIFA) 2018 러시아 월드컵 득점왕 경쟁에 불을 붙였다.

체리셰프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월드컵 개막전에서 두 골을 뽑아낸 데 이어 2차전에서 한 골을 추가하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골·레알 마드리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체리셰프는 20일(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집트와의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후반 14골 쐐기골을 터뜨리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러시아 월드컵 3호골이다.  
벨기에의 로멜루 투카쿠(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해리 케인(토트넘)도 조별리그 1차전에서 2골을 넣으며 득점왕 후보에 올랐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와 브라질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메시는 지난 16일 열린 아이슬란드와의 D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18분 페널티킥을 실패해 체면을 구겼다. 스위스와의 E조 첫 경기에서 스위스 선수들의 집중 견제로 골을 넣지 못했던 네이마르는 20일 발목 통증으로 훈련을 중단해 22일로 예정된 코스타리카와의 2차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집트를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로 이끌었던 모하메드 살라(리버풀)도 득점왕 경쟁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당한 어깨 부상의 여파로 우루과이와의 A조 조별리그 1차전에 결장했던 살라는 러시아와의 2차전에서 페널티킥으로 1골을 넣었지만 정상적인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뉴시스

## “한국 오랜 기간 분석... 빠른 축구 구사”



### 멕시코 라울 히메네스, 한국전 앞두고

멕시코 축구대표팀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울버햄프턴)는 맞대결을 앞둔 한국을 오랜기간 분석했다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한국은 24일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멕시코와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히메네스는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노보고르스크 다이아모 훈련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히메네스는 “한국이 월드컵 이전에 치렀던 평가전들을 살펴봤다”며 “한국은 빠른 축구를 구사하며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대표팀 주공격수로 지난 17일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독일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의 주인공인 이르빙 로사노 교체 선수로 출전해 팀의 1-0 승리를 도왔다.

히메네스는 “조별리그 전승으로 16강에 진출하겠다. 한국전을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는 20일 모스크바에서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21일 소치로 이동한다. /뉴시스



##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역대 최고 성적

### 청풍기 대회서 단체전 준우승·개인전 5메달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제11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 고창군청 여자유도부팀이 단체전 준우승을 비롯해, 개인전 5개(금1·은2·동2) 메달을 획득하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하주희(-52kg)가 금메달을 차지했고, 박은지(-78kg) 엄다현(+78kg)이 은메달, 서수빈(-57kg) 공서영(-63kg)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단체전에서는 경남도청 유도부를 이기는 파란을 일으키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고창군청 여자유도부는 2009년 창단되어 전국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거두며 고창 스포츠 홍보단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이번 청풍기 유도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스포츠 강군, 고창'을 전국에 널리 알렸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금빛 영광을 쓴 하주희 선수는 “고창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훈련으로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올해 전국체전 유도경기가 고창에서 개최되는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강정호, 빅리그 복귀 발걸음 재촉... 트리플A 3안타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트리플A에서 맹타를 선보이며 빅리그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피츠버그 산하 트리플A 구단인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 소속으로 뛰는 강정호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빅토리 필드에서 열린 노포크 타이즈(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와의 경기에서 3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3타점을 기록했다.

지난 12일부터 트리플A 경기에 나선 강정호가 한 경기에 3개의 안타를 몰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첫 장타(2루타)를 포함해 5타수 2안타 2득점으로 활약한 강정호는 2경기 연속 멀티히트 행진을 벌였다. 그의 트리플A 타율은 0.182에서 0.269(26타수 7안타)로 치솟았다.

한편 2016년 12월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드러난 강정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여파로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2017시즌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말 취업비자를 발급받았고, 뒤늦은 스프링캠프와 상위 싱글 A를 거쳐 트리플A에 승격,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닐 헌팅턴 피츠버그 단장은 “트리플A 기록만 가지고 강정호의 빅리그 복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호는 이날 기록으로도 피츠버그에 기대감을 안겼다. /뉴시스

#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위대계승 및홍지민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연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원한국)

홍보대사 류수영